

net communication
netcommunication
net communication

http://

앞선 생각 · 앞선 기술 통해 글로벌기업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

금형 · 사출 제작 전문업체 (주)엠아이텍코리아

(주)엠아이텍코리아(대표 · 김재철, www.mitechkorea.com)은 2002년 7월 설립된 이래 짧은 기간동안 금형제작 및 사출성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며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여 이 분야의 '리딩 컴퍼니'로 인정받고 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창의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개발의지를 불태우고 앞선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이 회사의 지칠 줄 모르는 성장의지는 '제2의 도약기'를 목표로 또 한 번 힘찬 항해의 닻을 올렸다. 최근 개성공단 · 중국공장 구축과 함께 세계시장을 무대로 글로벌마케팅을 향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취재 | 박지연 기자

설립한지 채 5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주)엠아이텍코리아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참으로 많아졌다.

2004년 11월 벤처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2005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06년 1월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BIZ) 인증, 6월에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유망중소기업 지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들은 이 회사의 저력을 단적으로나마 잘 나타내어준다. 회사의 저력은 매출에 영향을 주어 2005년 무역의 날 행사에서 1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불과 1년 후인 2006년에는 3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기업을 토했으며 올해는 목

표치에는 못 미쳤으나 400만 불 이상 수출을 기록하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성장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이 근간이 된다. 고도로 숙련된 정밀금형제작과 사출성형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IT분야와 자동차분야 등에서 디지털카메라 및 폰카메라, 카메라경통모듈부품, 자동차배어링케이지부품 RC 및 로봇용 서보제품, 조명LED, 컨넥타 등의 전자부품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시대에 필수적인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주력제품인 모바일용 카메라 경통은 산업 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화상품으로 인정받았으



며, 수입에 의존해오던 기계 동력을 담당하는 서브모터를 국산화하면서 향후 국가 미래성장 동력기술로도 기대 모으는 로봇제작과 같은 첨단화 기술에 적극 도전하며 앞서나가고 있다.

수입의존 '서브모터' 국산화등 첨단화 기술에 끊임없이 도전

엠아이텍코리아는 2005년 8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과 함께 초정밀엔지니어링플라스틱 생산기술을 근간으로 연구개발 및 제품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 9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되어있는 연구소는 “어떤 제품이든 디자인만 있으면 기구설계에서 제품 조립까지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올해 초 국산화에 성공한 서브모터는 이 회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판단력과 기술력이 고스란히 응집돼 있다. 기계 동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서브모터는 그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데 이 회사에서는 우선 서브모터 지출시장으로 로봇시장을 선택, 아이들의 창의력과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제작에 첫발을 내딛었다.

김재철 사장은 “서브모터를 개발한 국내 회사는 엠아이텍코리아가 유일하며 현재 자체 브랜드로 교육용 로봇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다.”며 “그간 수입에 의존해 오던 국내시장과 초정밀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매출 신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엠아이텍코리아는 모바일용 카메라 경통으로 세계일류화상품으로 인정받는데 이어 모바일 플라스틱렌즈 모듈 금형에서도 고정밀 특수피치나사가공기술로 2007년 NET인증을 받으며 다시금 대내외에 기술력을 과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관련 제품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의 소형화·고품질화·생산라인의 자동화 등에 따라 기존 금형가공 및 생산 방식으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대응책으로 고배율·오토포커싱 등 고기능성 광학부품 제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엠아이텍코리아는 모바일 카메라의 주요 수요처의 고품질·고배율 모바일용 플라스틱 경통 금형기술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고급 기술을 이용한 카메라 모듈 국내 시장 선점과 함께 안정적인 매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금형과 사출성형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습득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첨단기술 및 제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의 도약기' 를 향한 외형 갖추기와 전 직원 교육에 역점

엠아이텍코리아는 요즘 한창 제2 도약을 향한 외형 갖추기와 내실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김재철 사장의 머릿속에는 엠아이텍코리아의 향후 10년 후 미래상이 그려져 있다.

중장기 목표중 앞으로 3년 내에 매출 500억 원 달성을 위해서 외형적으로는 본사를 주축으로 김포, 의왕 등 국내 3개 공장과 개성공장, 중국공장이 현재 셋팅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글로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체 매출이 광응용부품이 70%, 모바일 등 전자부품분야가 20%, 자동차관련으로 10%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 본사에서는 전반적인 R&D와 해외마케팅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특



▶ 로봇용 서브모터를 응용한 디지털도어록을 소개하는 김재철 사장.



히 서브모터를 근간으로 한 교육용 로봇분야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개성공단공장은 광학 부품과 핸드폰관련 부품을 담당하고 중국공장에서는 자동차용의 베어링과 액츄에이터 부품을 담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에서의 자동차 분야가 향후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이 회사에서는 중국에서 직접 조립까지 할 계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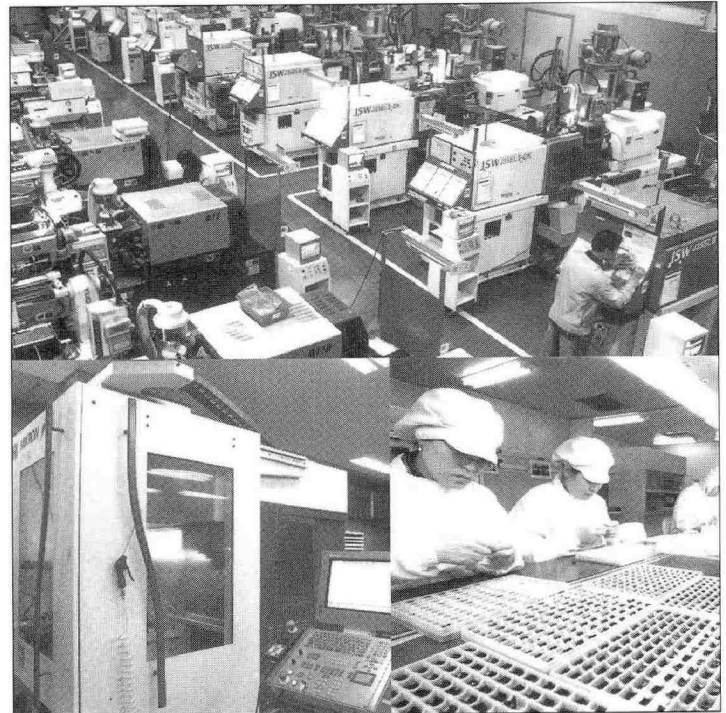
김재철 사장은 “현재 각 지역별 공장가동이 정상화 및 안정화되는 기간을 3년으로 본다.”며 “향후 8년후까지 800억~1000억의 외형수준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이 외형적인 성장에 앞서 가장 고민하고 신경 쓰는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통한 내실 다지기다. 김재철 사장은 본인 스스로가 인하대학교 최고위과정을 올해 초 수료했을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도 남다른 의욕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직원들의 가치를 높이고 상호 화합 속에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믿는 그는 교육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직원들에게는 주 5일근무제 실시 이후 생긴 휴일중 이틀(4시간) 시간을 투자하게 하고, 회사에서는 비용을 들여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기본적인 소양교육에서부터 각 작업자별 맞춤교육까지 계획해 진행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직원교육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여 더 큰 도약을 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엠아이텍코리아는 회사의 고도성장길에 장애인 사업도 펼쳐 가슴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올해 초 부천에 장애우사업장을 신설하고 15명을 채용한 것과 관련, 노동부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대통령표창도 수상했다.

김재철 사장은 “장애우들이 일반인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질지라도 적극성과 참여도가 매우



▶ 금형제작과 성형사출이 이뤄지는 생산현장. 사출성형에서 조립검사까지 클린룸 생산공정시스템을 보유·가동하고 있다.

높아 일반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동반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오히려 장애우로부터 배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 상까지 받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장애우를 많이 채용하여 사회참여를 돕고 싶다.”고 밝혔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는 말을 창업 때부터 모토로 삼고 있다는 김재철 사장은 항시 창의와 도전이라는 마인드를 잊지 않는다. 엠아이텍코리아의 빠른 성장 노하우의 비밀이 바로 이러한 마인드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된 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엠아이텍코리아의 노력이 더 큰 성과를 낳으리라 기대해 본다.



▶ 엠아이텍코리아에서 생산중인 다양한 광학제품들.